

A: 마에다 씨, 청계천이 새 단장을 했다는데 아시나요?

B: 네, 청계천이 아주 아름다워졌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. 특히,
분수와 폭포가 아주 멋지다고 해요.

A: 네, 맞아요.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고 해요.

B: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. 내일 주말인데 같이 가지 않겠어요?

A: 미안해요, 마에다 씨. 내일은 친구와 약속 있기 때문에 못 가겠네요.